수신 : 박옥순간사
발신 : 한기성

일단 팩스 보내주신 것 받아보았습니다. 인원 12명(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5명이나 되시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낯설고 물설은 미국에서 무척 고생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검토되어야겠지만. 일단 팩스를 받고 몇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빗장이 발전하기 위해 겪어야 할 진통의 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회의 참석하시기를 결정하신 여러분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여러분 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명감으로 끗끗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 공도 심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시차, 음식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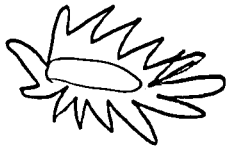
1. 행사 일정표-영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담당자들 연락처 이름 행사주관자들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직막 페이지 2.3.5 미국내 지원활동 지원, 통역서비스, 차량지원 등에 관련해 이분들게 미리 인원수, 일정을 통보해 놓는게 좋을 듯합니다.

2. 미 대사관(서울)의 비자 수속에 별문제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시일을 다툰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미국수녀님께 도움 요청 가능)

3. 비행기표는 탑 여행사가격이 좋은 듯합니다. 단 행사 일정 하루쯤 전에 호텔(행사가 열리는 Bethesda-워싱턴 DC 서북 교외지역)의 하얏트 리전시에 묵으시길 권합니다.)에 도착하셔서 13시간차(한국보다 그곳 시간이 늦습니다)에 도착하셔서 15시간 정도 비행시간도 만만치 않을거고요. 단 호텔 예약은 날짜가 확정되면 현지 (여행사 IATA 할인가격)이나 대사관(할인가격으로)예약하면 좋고, 4명 1실, 뭐 특별히 4명 묵어도 방은 bed 2개에 넓으실 겁니다. (2 이상도 묵을수 있음) 2명이라고 예약하고 4명이 써도 무방하며 (정 양심에 가책이 되시면 추가비용을 부담하시고 쓰십시오) 저희 수도회의 ST. Demaian school 견학이나. 워싱턴 DC 관광 혹은 NY 관광에 며칠 쓰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DC내의 센터 방문도 재상식으로는 왕복 비행기표값에 조금만 더 가산하시면 3군데까지 들러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제가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다같이 만나뵈면 좋을 듯합니다. 비행기 탈 때, 타고가는 중에 아니면 현지에서 느끼고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얘기하면 좋을 듯 한데 제가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있을 지 한느번 세끼줄을 체크해보기는 해야겠군요.

- 비행기 짐은 32ibs(pounds) 2개까지 1인당 허용되고, 그 이상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부시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시카고 중부시간보다 1시간 빠르고 LA의 퍼시픽 타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거리는 1mile=1.6km, 무게는 1pound를 기준으로 하며 지폐는 $1, $5, $10, $20, $50, $100등이고 동전은 1penny(1전), nickle(5전), dime(10전), quarter(25전)입니다. 물건구입



시나 식당사용시 음식값 지불 때 6-8%의 sale tex가 가산됩니다.

5. 혹시 도움되실까해서 떠나시기전에 전달해 드리겠지만 현지 지도, 지하철노선도, 한인업소록 등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음식에 질리실경우에 대비 우래옥(1500s, goyce st. arlington 703-521-3706) 등 한국식당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아울러 간단한 김, 라면 등에 짐에 넣어가져가시고, 6월 그속 기후는 이곳과 비슷하므로 긴팔 옷 몇벌 정도에 너무 두꺼운 옷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기를 --- 짐 되니까

6. 현지 여행사(D.C NEWYORK, CHICAGO)들이 모두 미국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toll free)를 쓰고 있으니까 전화 거실일 있으시면 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이용하시고(예 시카고 고려여행사 1-800-621-0131) 혹시 구입하실 수 있으면 미국내 통화시 사용하는 calling card를 한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통화, 미국에서의 전화통화가 가능하며, hotel 통화보다 쌉니다.

7. 필요한 현찰말고는 credit card를 사용하고 귀국 후 결제하셔도 되며, 단 환율은 카드 결제시가 조금 높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8. 몇몇 분은 혹시 KAL 탑승시 13-4시간동안의 비행이 힘드실 지 모르겠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2-3개라도 이코노믹 클래스 좌석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꿀 수 있는지도 티킷 구입 후 알아봐 드리지요.)

9.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4월 6일부로 섬머 타임이 시작되어 현지 시각보다 13시간 서울 시간이 빠릅니다. 이곳이 8일(화) 아침 10시 이면 그곳은 7일(월) 밤 9시입니다.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면시 필요한 안대나 덧버선(양말위 착용) 등이 필요할 지 모르며 KAL에 예약 후 출발 전에 빈 좌석으로 이동하여 넓게 가시는게 덜 피곤할 지 모르겠군요.

10. 현재 대사관이나 한인회 등에도 인원과 모든게 확정된 뒤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11. 2달이란 기간이 준비기간으로 길지 않을 것입니다.
초행인데다 말 설고 음식 설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 간단한 영어(자기 소개) 준비하세요
- 명함(BUSINESS CARD) 교환, 주소, 연락전화번호 교환
- 행사장(오픈된 공간)에서의 통역은 힘들 것 같고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브리핑을 받으시는 방법이 낫을 듯합니다. 혹시 강사들이나 행사주관자한테 요청가능하면 미리 강연요지 등을 원고로 받아서 보고 가십시오.